

무더기로 매몰 처분되면서 당장 수급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다. 새끼 오리의 생산 기반이 급격하게 무너진 상황에서 수입 오리고기 물량도 급격하게 늘었다. 우려대로 올해 초 극심한 물량 부족으로 상반기 산지 오리가격은 1만 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FMD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대체식품 차원에서 반사이익 효과도 어느 정도 작용되면서 가격 상승세는 이어졌다.

하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오리 산업의 명암은 극명하게 갈렸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오리가격이 급격하게 하향세로 돌아섰다.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상반기에 무분별하게 이뤄진 F1오리의 불법 입식이다. 협회 차원에서 불법 입식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힘에 부친 모습이었다. 애당초 협회 차원의 통제와 단속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기에 안타까움은 더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수차례 AI를 겪은 오리 산업은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내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위기라는 상황이면에는 기회도 분명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농가의 무분별한 불법 입식은 악순환을 낳았다. 게다가 오리고기 수요가 줄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계열업체들도 오리 산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오리 산업은 또 다른 국면에 처해있다.

지난 10년간 오리 산업의 성장세는 실로 엄청났다. 축산업 중 가장 먼저 수입이 완전 개방됐음에도 10년 동안 경이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축산업 주요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리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런 만큼 오리업계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수급 문제와 F1오리 불법 입식 등에 대

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선진국들과의 잇따른 FTA로 국내 축산 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가축사육제한 조례 등으로 축산업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는 기존 방식과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변 여건은 산업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면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산업 주체들이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뒤따른다면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업계의 단합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리산업 성장 비결 ‘경쟁’ 아닌 ‘공생정신’



김재민
농축유통신문
부장

부화-농가-계열주체 공생 위해 새해 수급조절 방안 모색해야

몇 년 전 월간 오리마을에 “우리 축산업의 마지막 블루오션, 오리산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했던 기억이 난다.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표현하는 블루오션이라는 말로 오리부분의 성장가능성을 이야기했었고 또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지적한 바 있다. 시간이 2년여나 지났지만 오리산업을 보면 아직도 잠재력은 크지만 유망주 단계를 벗어나기에 아직 해결해야할 미완의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리산업 위기는 수급조절 실패서 시작

현재 오리고기 값이 좋지 못하다.

지난해 9월호 오리마을에 오리고기 수급조절의 중요성을 국제 곡물가격 동향 등을 근거로 설명하는 원고를 기고한 적이 있다.

앞으로 축산업은 고곡물가 시대가 만성화되면서 그만큼 최종산물의 가격을 높게 받지 못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리고기의 값을 올리는 방법은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거나 공급부분을 수요에 맞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 밖에 없다.

문제는 수요증가분보다 현재 오리업계의 공급물량이 적정선을 넘어서 있다는 것이다.

오리업계가 자랑하는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과 프랑스산 종오리의 쿼터배분제도는 그동안 F1종오리의 무분별한 사육으로 그 의미를 약화시켜왔던 게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검정사업, 종오리데이터베이스 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이를 완전히 제어하는 데는 실패한 상황이다.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압장이나 계열화업체들이 F1종오리의 사용을 자제해 시장을 없애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도 값이 좋아지고 새끼오리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 좀처럼 F1종오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F1종오리의 자정을 기업의 도덕성에 기대는 방법으로 한계가 있다면 F1종오리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을 가해야 하지만 강력한 법적 도구가 없어 그러지도 못한 상황이다.

전체 산업을 생각지 않고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무분별한 종오리 늘리기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자본력이 약한 농가,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육계 과잉생산 부작용 낳아

그럴 경우 육계부분에서 십 수 년 간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과 계열주체와 농가 간 분쟁의 길로 오리업계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육계부분은 과도한 시장점유율 경쟁 속에 물량확보에 열을 올리다 닭고기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장기간 유지되면서 수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났고 그러한 가운데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봤다.

그뿐만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력이 있거나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은 몇몇 업체들을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되며 거대 계열주체가 탄생했고 농가와 계열주체와의 거래교섭력의 차이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육계산업의 혼란과 반목의 역사의 가장 기초는 산업을 생각지 않고 상대를 배려치 않는 무분별한 사육수수 늘리기에 있었다.

오리업계도 내부적으로 다소 의견 충돌도 있고 F1종오리라는 돌출 행동도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수급조절을 위한 의견 일치가 있었다.

수급조절에 대한 의견 일치는 계열주체, 부화업자의 안정적 수익으로 이어졌고 산업전체의 파이를 조금씩 키우며 또 자본을 축적하고 부화-농가-계열회사 간 비교적 공정한 이익분배를 가능케 했다.

오리산업 경쟁보다 공생 선택 성공

이상의 논증에서 알 수 있듯이 오리산업이 AI 등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고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지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한 경쟁보다는 공생이라는 가치를 중시 여기며 수급조절이라는 대의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새해 오리업계는 지금까지 산업 발전의 바탕이었던 공생의 정신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발전시켜 나

갈지 시험대에 올라서 있다. 다행스럽게 악몽 같은 AI도 올해는 빗겨가는 듯 싶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급조절을 위한 업계의 일치된 모습이다. 앞으로 있을 이사회 그리고 정기총회 전에 수급조절에 대한 대의를 세우고 전체 업계가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값은 떨어지고 사료가격은 높아 어려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숙원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2년 오리산업 전망 “아주 밝다.”



곽동신
라이브뉴스
부장

빠르게 성장을 하던 오리산업이 잠시 숨고르기를 한후 2012년에는 다시 한번 도약하며 성장가도를 달릴 것으로 보여진다.

2011년의 오리산업은 재도약을 위한 숨고르기 과정으로 보여진다. 2009년 오리산업 총생산액이 처음

으로 1조원을 넘어서자 오리협회에서는 이에 발 맞춰 총생산액 2조원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AI 등 질병문제와 경제불황 등의 이유로 오리고기 소비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오리고기 가격도 낮게 형성됨에 따라 2010년에는 1조 3천여억원, 2011년에도 2조원 달성은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2012년에는 2조원 목표 달성을 기대해 본다.

오리산업은 잠재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 최근 20여년간 꾸준하게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면 오리 사육 마리수는 1990년대에 연평균 34%의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연평균 11%의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10년 전에 비해 150%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오리고기는 웰빙시대에 적합한 식품으로 소비자들로 가장 각광받고 있다. 오래전부터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왔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이다. 소비패턴도 과거 구이와 탕 중심에서 훈제구이 등 다양화되면서 가정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오리자조금사업이 시작되어 다양한 소비홍보를 통해 오리고기 소비를 늘리는데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오리산업이 더욱 성장해 2조원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리고기 소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오리자조금사업을 통해 성장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량을 너무 초과하는 공급은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소비량의 증가에 보조를 맞춰 오리고기를 생산해 나가는 수급 조절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오리협회와 오리자조금을 중심으로 농가들이 합심하여 오리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된다면 오리산업의 2조원시대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2012년에 달성되기를 기대해 본다.